
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

2019. 3.



부산지방해양수산청



목 차

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일반현황 | 1 |
| II. 2018년 성과와 평가 | 3 |
| III. 2019년 정책환경 전망 | 5 |
| IV. 비전 및 목표 | 7 |
| V. 주요업무 추진계획 | 8 |
| 1.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 | 8 |
| 2. 글로벌 허브항만 기반 확충 | 11 |
| 3. 살아 숨쉬는 연안공간 창조 및 해양문화 확산 | 13 |
| 4. 사람과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 | 15 |

I

일반현황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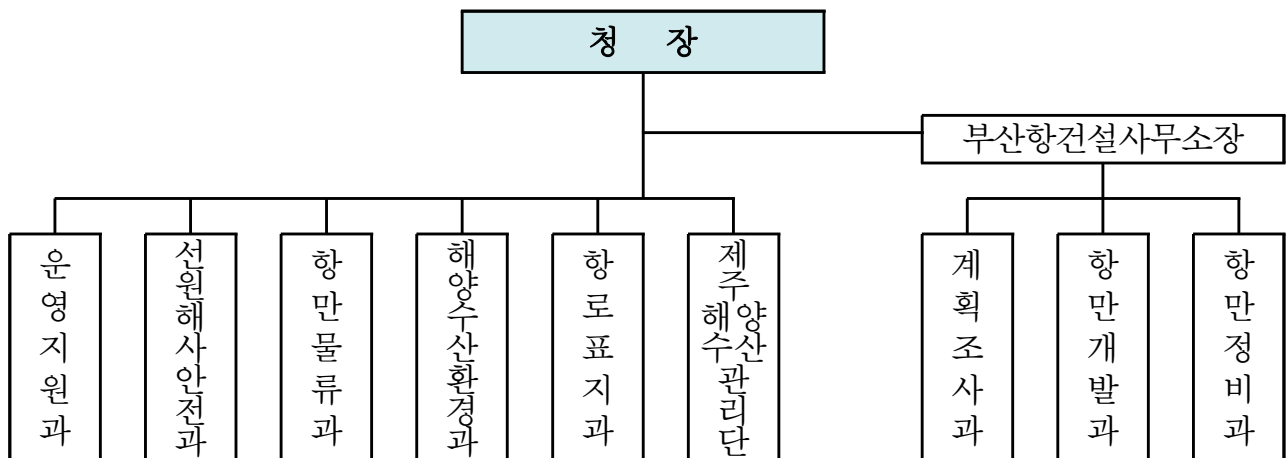
주요 업무

- ① 항만 인프라 확충 및 지원시설 기능 강화
- ② 해운, 항만, 물류산업 육성·지원 및 선원해사 안전관리
- ③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문화·관광·레저 활성화
- ④ 현장중심의 수산행정체계 구축 및 다기능 어항 건설

2

조직

□ 기구 : 5과 1단 1사무소(3과)



□ 인원 (정원/현원)

(단위 : 명)

| 구분 | 계 | 고공단 | 3·4급 | 4급 | 4·5급 | 5급 | 6급 | 7~9급 |
|-----|---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합계 | 233/208 | 2/2 | 1/1 | 5/7 | 3/1 | 25/22 | 77/78 | 120/97 |
| 부산청 | 149/136 | 1/1 | 1/1 | 2/3 | 2/1 | 13/12 | 51/56 | 79/62 |
| 부건소 | 38/32 | 1/1 | - | 3/3 | - | 8/7 | 11/11 | 15/10 |
| 제주단 | 46/40 | - | - | 0/1 | 1/0 | 4/3 | 15/11 | 26/25 |

* 청경(142/107) 별도 (제주단 141/106명, 부건소 1/1명)

3

예산 현황

□ (총괄) '19년 예산은 2,927억원으로 전년대비 4.3% 증가

□ (주요사업비) 2,685억원으로 전년 예산(2,575억원) 대비 4.3% 증가

○ 부산항 신항 개발 1,467억원, 부산항 개발 318억원, 북항재개발 77억원 등

(단위:억원)

| 구 분 | 프로그램 (단위사업) | '17년 | '18년 (A) | '19년(B) | 증감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| | | B-A | (%) | |
| 총 계 : ㉠+㉡ | | 3,693 | 2,805 | 2,927 | 122 | 4.3 | |
| ㉠ 인건비·기본경비 | | 239 | 230 | 242 | 12 | 5.2 | |
| ㉡ 주요사업비(합 계) | | 3,454 | 2,575 | 2,685 | 110 | 4.3 | |
| 일반회계 | 소 계 | 266 | 123 | 170 | 47 | 38.2 | |
| | 해양환경보전 | 144 | 102 | 146 | 44 | 43.1 | |
| | 해양정책및영토관리 | 1 | 1 | 1 | - | - | |
| | 해양수산정보화 | 15 | 13 | 13 | - | - | |
| | 해운산업 선진화 | 104 | 6 | 8 | 2 | 33.3 | |
| | 해양및해상교통안전 | 2 | 1 | 2 | 1 | 100 | |
| 교통시설 특별회계 | 소 계 | 2,981 | 2,197 | 2,319 | 122 | 5.6 | |
| | 부산신항개발 | | 2,112 | 1,360 | 1,467 | 107 | 7.9 |
| | 주요 항 건 설 | 소 계 | 761 | 765 | 764 | -1 | -0.1 |
| | | 부 산 항 | 586 | 413 | 318 | -95 | -23.0 |
| | | 부산북항재개발 | 4 | 50 | 77 | 27 | 54.0 |
| | | 일반항(부산남항) | 21 | 0 | 0 | - | - |
| | | 태풍피해복구(항만) | 44 | 249 | 334 | 85 | 34.1 |
| | | 항만시설유지보수 | 106 | 53 | 35 | -18 | -34.0 |
| | | 항만보안시설 | 48 | 11 | 10 | -1 | -9.1 |
| | | 표지시설 | 60 | 61 | 78 | 17 | 27.9 |
| 에너지 및 자원 사업특별회계 | 소 계 | 129 | 129 | 125 | -4 | -3.1 | |
| | 유류비보조 | 129 | 129 | 125 | -4 | -3.1 | |
|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| 소 계 | 78 | 126 | 71 | -55 | -43.7 | |
| | 국가어항 | 75 | 122 | 67 | -55 | -45.1 | |
| | 어업경영체등록 | 3 | 4 | 4 | - | - | |

* 과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, 항만시설유지보수 비총액은 14억원, 총액은 21억원

II 2018년 성과와 평가

1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을 위한 부산항 인프라 확충

- 서'컨'(1단계) 배후단지를 완공하고, 남'컨' 배후단지 개발사업*과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**을 차질 없이 추진

* (서'컨'(1단계)) 50만m², 683억원, '13.8~'18.12 / (남'컨') 144만m², 4,319억원, '16.1~'21.7

** 호안 1.6km(수토용량 1,056m³), 710억원, '17.2~'20.2

- 내륙수송망 구축을 위해 서'컨' 진입도로*를 개발하고 남'컨' 진입도로*를 설계하였으며, 소형선부두(830m) 축조공사 발주(345억원)

* (서'컨') 도로 2.2km, 220억원, '17.10~'20.10 / (남'컨') 도로 0.7km, 488억원, '19.5~'22.11

- 북항 재개발 사업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배후도로(지하차도) 건설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고 대안입찰 공고('19.2)

* 지하차도 건설 1.87km / '12.03~'22.12 / 2,379억원

☞ 세계 2대 환적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산항 인프라 지속 조성 필요

2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

- 부산항 타부두 환적 운송체계(ITT : Inter Terminal Transshipment)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항운송협동조합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추진

* 부산항운수협동조합과 대형 운송사·선사 간 소통 지원, 지속적인 동향 모니터링 등 실시

- 항만 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후 야드트랙터(Y/T) LNG 전환사업을 지속 추진('18년 117대→217대)하고 LNG 충전인프라 구축(신항 3부두)

- 위험물 안전관리 협의체(컨터미널)를 운영하여 항만 안전 확보를 위한 민·관(부산청·부산소방본부·부산세관·BPA·컨운영사) 합동 대응체제 구축

* 부산항 위험물질 등 재난사고 공동대응 협약(MOU) 체결('18.6.)

☞ 항만 미세먼지 등 해양환경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 필요

☞ 안정적인 항만여건을 조성하고 물류 지원체계 효율화 필요

③ 해양 관광·레저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

- 크루즈선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도 동삼동 크루즈 전용부두 확충(8만G/㏏ → 22만G/㏏)을 완료('18.10)

* (기간/사업비/주요내용) '16.8~'18.9 / 323억원 / 안벽 보강·확충 440m, 준설 62천㎥

- 해양레저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상설 카약체험장을 무료 운영*('18.5.~10.)하고, 부산항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행사**도 실시

* (16) 87,404명(4개소) → ('17) 91,073명 → ('18) 64,263명(폭염영향 인원감소)

** 미니카약 체험('18.5, 2회), 모형배만들기체험('18.5, 2회)

☞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 현안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

④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 연안공간 조성

- 재해를 예방하고 연안을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복원하기 위해 영도 동삼지구*, 다대포해안 동측지구** 등의 연안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

* (기간/사업비/주요내용) '15.11.~'19.4. / 333억원 / 호안정비 1.4km

** (기간/사업비/주요내용) '16.9.~'19.11. / 88억원 / 호안정비 930m

- 감천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실시설계*를 완료하고, 다대포항(1차년도)·남항(4차년도)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사후모니터링도 실시

* 처리면적 16만㎡ / 수거량 243천㎥ / 예산 6억

☞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, 시민참여 확대 등 계속 추진사업의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

⑤ 항계 내 통항선박 안전 및 해상교통질서 확보

- 통항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불법어로단속(2회)과 특별개항단속(2회) 등 취약지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

- 중리항방파제 등대('18.8.)와 낙동강 하구 등주 영상감시시스템('18.11.)*을 설치하고, 조도방파제 등대 개량 설계용역('18.7.) 완료

* 7대 : 가덕대교 3, 정거항방파제등대 4

☞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규정 정비, 행정지도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

Ⅲ 2019년 정책 환경 전망

1 국내·외 경제여건

- (세계경제) 선진국 금리인상으로 유동성 효과가 사라지고 미·중 무역 갈등에 따른 교역위축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

* 성장률 전망 : (OECD) 3.7%('18) → 3.5%('19), (IMF) 3.8%('18) → 3.5%('19)

-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, 미·중 통상분쟁의 장기화 및 신흥국 중심의 자본유출로 인한 금융불안 등 하방압력요인 가시화 가능성

- (국내경제) 세계교역량 증가세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, 제조업 성장 둔화 및 건설업 부진 지속으로 저성장 고착화 전망

* 성장률 전망 : (OECD) 3.0%('18) → 2.8%('19), (KDI) 2.6%('18) → 2.5%('19)

2 분야별 전망

① 해운·항만 물류

- '19년 글로벌 '컨' 해상물동량은 전년(7억86백만TEU) 대비 4.2% 증가한 8억19백만 TEU로 전망

- 경기둔화, 국가간 보호주의,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 전망

* (Drewry) 2022년 '컨' 항만물동량 평균 증가세를 5.7%에서 4.3%로 하향조정

- 국제해사기구(IMO)의 강화된 환경규제가 본격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선사들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

-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선사 및 얼라이언스의 동북아 환적중심항만으로 부산항을 지속 이용함에 따라 부산항 '19년 총 물동량은 전년(21,592천 TEU) 대비 4.2% 증가한 22,500천 TEU로 전망

② 해사안전

-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(태풍·고수온 등) 빈번·심화 및 사회재난(선박사고 등)의 반복적 발생으로 정부의 재난관리 역량강화 요구 증대
 - 선박온실가스 감축전략('18.4),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('17.9), e-내비게이션 시행('21.) 등 국제환경·안전 규제 강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
- 국제적인 해운경기 회복 불투명 등 불확실한 시장여건과 국내 선사의 영세성으로 인해 선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투자는 저조

③ 해양환경

- 유류오염사고 등 전형적 오염원 외에 발전소 냉·온배수, 위험·유해물질(HNS) 등이 새로운 위해요소로 부각
 - * 발전소 등에서 연간 약 727억톤 규모(연간 강우량의 약 60%)의 냉·온배수가 배출되고, 이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및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 관련 대립 등 사회적 갈등 심화
 - 또한, 해양쓰레기 중 육상유입 쓰레기가 약 70%를 차지하고 있으나, 육상오염원 관리수단 제약으로 인해 해양환경 개선에 한계
- 해양 이용행위의 다양화와 동시에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어 해양공간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지속될 전망

④ 수산

- 연근해어업 생산량*은 남획, 불법어업 등으로 계속 감소 추세이며, 양식 총생산량**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, 어류양식은 재해, 투자부족으로 성장세 정체
 - * 연근해 생산량(만톤) : ('08) 128 → ('10) 113 → ('14) 106 → ('16) 91 → ('17) 93
 - ** 양식 총 생산량(만톤) : ('16) 184만톤 → ('17) 232 / 어류 양식량 : ('16) 8만톤 → ('17) 8
- 저출산·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·기능성 및 간편·편의 수산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
 - * 1인당 수산물 연간소비량(kg) : ('10) 51.3 → ('16) 59.9 → ('17) 60.0

IV 비전 및 목표

비 전 깨끗하고 안전한 부산항 ! 생동감 넘치는 부산항 !

-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목 표 | ◆ 대형 해양사고 제로화 및 해양안전 의식 확립 |
| | ◆ 글로벌 허브항만 도약을 위한 신항만 지속 개발 |
| | ◆ 해양관광·문화가 융합된 복합기능 신 해양공간 조성 |

| 전략과제 | 세부 추진 과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 집중 추진 ② 항내 해양사고 예방 강화 ③ 현장에 기반한 해양안전 시스템 구축 ④ 항행안전 서비스 품질 개선 |
| 글로벌 허브항만 기반 확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⑤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을 위한 부산항 신항 개발 ⑥ 안정적인 항만운영 여건 조성 ⑦ 효율적인 물류 지원체계 구축 |
| 살아 숨쉬는 연안공간 창조 및 해양문화 확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⑧ 해양관광 인프라 확대 및 해양관광 활성화 ⑨ 해양교육 및 레저스포츠 확대 ⑩ 고부가가치 청정 연안공간 조성 |
| 사람과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⑪ 민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⑫ 현장중심의 선원근로행정 구현 ⑬ 어업경영체 관리시스템 정착 및 어업인 지원 강화 |

V 주요업무 추진계획

1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

◆ 선박운항과 항만하역 현장 등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, 해양안전 관리를 체계화하여 해양사고를 예방

1 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 집중 추진

○ 하역·상차와 야적·이송 과정의 항만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저공해 하역장비를 도입·운영(BPA)

- 항만 야드트랙터(YT)를 친환경 LNG 연료로 계속 전환*하고, 경유 트랜스퍼크레인(T/C)은 무공해 전기시스템으로 전환**(~'21.)

* '18년까지 부산항 YT 704대 중 243대 LNG 전환 완료, '19년 100대 추가 전환

** 부산신항 T/C 218기 100% 전기시스템 운영 중, 북항 T/C 123기 중 84기(68.6%) 전환 완료

- 경유 YT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배출가스저감장치(DPF*)의 현장테스트를 완료('19.3.~9.)하고, '20년부터 LNG 미전환 경유 YT에 DPF 100% 설치

* Diesel Particulate Filter : 경유엔진 내 미세매연입자를 포집, 연소시켜 제거하는 장치, '18년부터 개발 중

○ 선박엔진의 연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제거 추진(BPA)

- 신항 소형선부두 내 저압 육상전력공급설비(AMP)를 추가설치하고, 신항 3, 4부두 고압 AMP 설계를 완료하는 등 AMP 설치 시범사업 추진

* 부산항 내 저압 AMP 총 77개소(4,643MWh) 운영 중

- 부산항만공사-한국가스공사 간 업무협약('18.6.)에 따라 부산항 LNG 병커링 사업방식 타당성 조사를 공동 실시('19.1.~'20.1.)

○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시행('20.1.)에 대비한 관련 제도 정비

- 배출규제해역(ECA) 및 저속운항해역 지정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('19.上)하고, 부산항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관리기준 마련 추진

② 항내 해양사고 예방 강화

- 항내 선박 통항 안전 확보를 위한 예선 운영 제도의 실효성 강화
 - 예선 사용 면제 신청 및 허가 절차를 명문화*하고,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부산항 예선사용기준 상향 조정을 검토
 - * 예선업무 및 업무처리요령에 관련 절차를 명기토록 본부에 건의
 - 입출항 신고시 1,000톤 이상 선박에 대해서는 예선 의무사용을 철저히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, 예·도선 사용여부 확인절차도 개선*
 - * 선박입출항 신고시 신고수리주체인 BPA 내부규정으로 예·도선 면제요건의 적법성 심사
- 최신 국제기준 이행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국통제 품질 제고
 - 안전관리 부실 기국 및 선급 등록선박 등 고위험선박에 대해 항만국 통제 점검을 강화하여 국제안전기준 미달선의 운항을 통제
 - * 선종별 취약요인 분석결과와 아태지역 MOU 계획에 따라 집중점검 실시
 - 외국항 출항정지와 중대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해 기국통제(FSC)를 철저히 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
 - * 특별점검, 선사의 재발방지대책수립, 안전관리시스템 재검토 및 간담회 개최
- 부산항 관내 6개 주요 교량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을 작성(부산시 주관)하고,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구축

③ 현장에 기반한 해양안전 시스템 구축

-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
 - 항내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구성('19.1.)한 「항만 안전에 관한 상설 협의체*」의 운영을 정례화(분기1회)
 - * 우리청 · 항만공사 · 항운노조 · 유관단체 등

- 부산항만공사 · 항운노조 등과 부산항 안전사고 예방 및 공동대응 협약(MOU) 체결('19.1.)
-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해양안전 실무교육 및 캠페인 등 실시
 - 선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“해양안전리더교육('19.11.)”을 실시하고 종사자들에게는 맞춤형 방선교육을 실시
 - 부산항 해양안전 사진공모전('19.9.), 해양안전의 날 캠페인(분기별) 등 시민참여형 캠페인 추진

④ 항행안전 서비스 품질 개선

- 항로표지 인프라 정비
 - 소형선박의 안전을 위해 남천항과 삼포항 방파제에 등대를 설치하고, '토도' 제거 등으로 항로가 변경되는 송도도등을 지향등으로 교체
 - 항만개발, 방파제 연장 등에 따라 기능이 상실되거나 중첩되는 항로표지(3기*)는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폐지(철거) 추진
- * 학리항방파제동단등대, 부산항남방파제등대, 감천항서방파제등대 레이콘
- 항로표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항로표지 311기*의 기능을 측정하고 동해권역 부표류 56기에 대해서는 정기교체
 - * 등대24, 안개신호기15, 위성항법보정시스템(DGPS) 및 항로표지용 AIS 등 272
- 항로표지의 상태를 신속히 확인하고 사고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항로표지의 기능점검에 드론*을 시범도입 운영
 - * 과기정통부의 '공공혁신조달 연계 소형무인기 기술개발사업' 과제로 선정되어 항로표지 유지관리용 드론 개발 중('16.11~'19.3)

◆ **신항 개발과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, 안정적인 항만운영과 물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부산항의 경쟁력을 제고**

1 동북아 허브항만 육성을 위한 부산항 신항 개발

- 공사 중인 남'컨'(2-4)* 3선석(21년 준공)과 서'컨'(2-5)** 3선석(22년 준공)을 지속 추진하고, 서'컨'(2-6)*** 2선석을 착공('19.5)

* (남'컨'2-4) 안벽 1,050m / '16.2~'21.12 / 4,215억원('19년 588억원)

** (서'컨'2-5) 안벽 1,050m / '12.8~'22.6 / 5,376억원('19년 365억원)

*** (서'컨'2-6) 안벽 700m / '19.7~'25.12 / 3,715억원('19년 155억원)

- “부산항 제2신항*”을 추진하고 신항 기항 기반 확충을 위한 피더 부두** 확보('19.上 발주)

* 기본계획(안)에 대한 지지체 등 협의('18.말)를 거쳐 '19.상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고시 예정

** (규모/기간/사업비) 안벽 384m / '20~'22 / 873억원('19년 5억원)

- 남'컨' 항만배후단지*를 지속 추진(~'21.8.)하고 북'컨'(2단계) 항만 배후단지(육망산)** 조성도 추진('19.설계, '20.착공)

* 부지 조성 144만 m², '16.1~'21.8, 4,319억원('19년 107억원)

** 부지 조성 52만 m² / 사업기간 미정 / 4,670억원(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중)

- 선박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'17년부터 추진 중인 토도 제거*의 후반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(~'20.4.)

* (규모/기간/사업비) 토석 제거 245만 m³ / '17.7~'20.4 / 3,031억원('19년 925억원)

- 서'컨'부두 개장에 대비하여 초대형 선박의 상시 입·출항이 가능하도록 개발(2단계) 준설*에 착공('19.4)하여 전면 항로구역 수심 확보

* 준설 791만 m³ / '19.4~'21.4 / 245억원('19년 25억원)

2 안정적인 항만운영 여건 조성으로 부산항 경쟁력 제고

- 해운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체계 개편 지원

- '19.6월까지 북항 '컨' 터미널 운영사의 원활한 통합·개편(3개사→2개사)이 가능토록 본부·BPA와 협의 및 지원
 - * 임대차계약이 종료('21.12.)되는 허치슨부두에 종사하는 항만근로자들(약 천명)의 일자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BPA와 적극 협의 처리
- 신항은 터미널 운영사의 동의와 협력을 전제로 8개 터미널(건설 중 3개 포함)을 4~5개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(본부)
 - * 북'컨'과 남'컨'은 6→3~4개, 서'컨'은 북항 통합운영사(장금상선·CJ대한통운+동부)에게 2-5 터미널 운영권 부여, '25년 2-6단계 통합 등
-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항만인력 노무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'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'의 운영절차를 개선*하고 기능도 강화**
 - * (기존) 정조합원 채용만 협의회 주관 → (개선) 임시조합원·정조합원 채용 모두 협의회 주관
 - ** 부산청·항만공사·물류협회·산업협회·항운노조 실무팀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 외부전문가 포함
- 항만물류정보서비스*의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발생시 복구시스템을 신속히 가동하기 위해 항만물류정보 공동재해복구센터 운영체계 강화
 - * 수출입 등 항만 관련 민원업무(B2G) 100%, 민간간 업무(B2B)의 80%이상 처리
- 응동 배후단지 기반침하 원인조사 연구용역*을 추진하여 침하발생 업체에 대한 보수범위, 방법, 침하방지대책 등 마련
 - * (수행기관/기간/비용) 대한토목학회 / '18.12.~'19.7. / 945백만원(BPA부담)

③ 효율적인 물류 지원체계 구축

- 부산항 ITT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
 - 환적화물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발주('19.4.)하고 환적화물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신항 내부도로망 구축('19.5.), 블록체인 ITT 운송시스템 구축('19.10.) 등 추진
 - 부산항운수협동조합 등 운송거부 대비 관계기관, 업계 등과 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, 관련 업계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
- 신항 내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서'컨' 진입도로*를 지속 추진하고, 남'컨' 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** 공사 착공('19.3)
 - * (규모/기간/사업비) 도로 개설 및 확장 2.2km / '17.10~'20.10 / 220억원('19년 5억원)
 - ** (규모/기간/사업비) 도로 개설 0.7km / '19.5~'22.11 / 488억원('19년 67억원)

◆ 마리나, 해양교육 및 해양레저스포츠 등 지원을 통해 해양관광·문화를 활성화하여 해양산업 및 해양문화 융성의 기반 마련

1 해양관광 인프라 확대 및 해양관광 활성화

- 해운대 마리나를 동백섬 및 광안리 해수욕장 등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거점형 마리나로 개발 지속 추진

* (시행사구도기간사업) 삼천소사업/ 계류시설20척 방파제 호안등/ '16~'22/ 837억원(국비289, 민간548)

- 해양관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리나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

- 관내 업체, 지자체 및 해경서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마리나업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, 마리나 관련 민·관·산·학 협의체를 구성

* 국제보트쇼(3.28~3.31), 부산항축제(5.25~5.26), KIMA WEEK(8월) 등 축제참여 확대

- 마리나업 등록업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록 갱신 관련사항 또는 정책 동향 등을 알림 e-메시지 전송서비스를 통해 적극 안내

-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항 내 유람선 운항금지 완화 추진

* 유선 운항이 금지되었던 남외항 제2항로는 유선운항금지구역에서 해제 완료('17.12.)

- 부산(북항)에서 유선이 운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'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' 개정('19.5)
- 현재 30톤 미만 유선만 통항 가능한 태종대 연안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쳐 유선 운항 가능 톤수 상향조정(77톤 이상) 검토('19.下)

2 맞춤형 해양교육 및 레저스포츠 확대를 통한 해양문화 확산

- 수요자 맞춤형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추진

-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수요자 맞춤 강연대화형 '찾아가는 해양교실' 실시(5~11월, 7회)

- 초등학생 대상 ‘표준 강의교재’ 제작을 통해 눈높이 강의 실시
 - * 해운, 물류, 환경, 해양레저, 등대 등 알기쉬운 교재 제작으로 내부직원이 직접 시범 강의(청장, 각 부서장 등 연 20회 내외)
- 해양레저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산항 축제와 연계하여 미니카약 체험*, 모형배 만들기 체험** 등 체험 행사 추진
 - * 카약체험장(50대) : 해양대 앞 친수호안에 설치, 현장접수 후 무료체험
 - ** 모형배는 조선통신사선, 거북선 등 海洋史的으로 의미 있는 선박을 선정
- 등대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
 - 영도등대에 See & Sea 갤러리를 운영(‘19.3~)하고, 국민을 대상으로 등대를 모티브로 한 문화행사* 실시
 - * 전국 손글씨 대회(4월), 등대 버스킹(4~10월), ‘바다의날 기념’ 초등학생 그림 그리기대회(5월) 등
 - 연중 등대 체험숙소(가덕도등대)를 운영하는 한편, 해양유산 등대 탐방(5~10월)과 여름등대 해양학교(7~8월) 등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

③ 고부가가치 청정 연안공간 조성

- 감천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*을 추진(‘19.~22.)하고 다대포항 및 남항 사업 후 해양환경모니터링** 실시(계속, KOEM 위탁 협약 ‘19.2.15.)
 - * 사업계획(수거량/공사비) : ‘19년(28천 m³/40억원**), 전체(169천 m³/238억)
 - ** 다대포항 2차년도 1억원, 남항 5차년도 1억원
-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육상오염원 차단과 추진상황 모니터링* 등 지도·감독을 강화
 - * 수질변화(등급) : 용호만 5→5, 남항 3→1, 다대포항 2→3
- 시민이 참여하는 ‘연안정화의 날(매월 셋째주 금요일)’ 활동을 확대하여 해양환경보존 캠페인과 병행 실시
- 연안재해를 예방하고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영도 동삼지구*와 다대포해안 동측지구** 연안정비사업 지속 추진
 - * (규모/기간/사업비) 호안정비 1.4km 등 / ‘15.11~’19.4 / 333억원(‘19년 83억원)
 - ** (규모/기간/사업비) 해안 정비 930m 등 / ‘16.9~’19.12 / 71억원(‘19년 21억원)

- ◆ 민원인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, 어업경영체 등록 확대 등 어업인 지원을 강화

1 민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

- **요·보트**에 대해 해경(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)과 우리부(소형선박조종사 한정면허)에서 이중으로 발급 중인 면허증의 일원화 방안 협의
 - * 선박직원법에 조종면허 취득시 우리부 한정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갈음하는 조항 신설 등
- **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**와 관련하여 계속사용이 예상되는 피허가자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만료와 기간연장절차 등 사전 안내서비스 제공
- **한·일국제여객선**(10개사 12척)에 대해 선박안전, 인적자원 및 운항 관리 등 부문별 밀착행정 시스템* 구축·운영
 - * 여객선 취항 전 선박감항성 점검, 운항 중 위해요소 발굴·개선과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팀 신속 조치 등
- **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**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를 정비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의 합동점검도 추진
 - *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실태점검('18.2) 결과 약 70% 부정수급 의심

2 현장중심의 선원근로행정 구현

-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은 신속·공정하게 처리
 - 업종별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근무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고충 상담을 실시하고 취업규칙심사도 내실화
 - * '19년 감독대상 : 965개사 3,181척(부산청 666개사 2,817척 / 제주단 299개사 364척)
 - 악성 임금체불과 진정(고소)사건 다발업체*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
 - * 3년간 5건/연 3건 이상 피진정(고소)업체, 3개월 이상 악성 임금체불 업체

- 선원권의 보호를 위해 **일일명예근로감독관*** 제도 시행('19.3)

* 일일명예근로감독관(해상노련 추천), 일일선원고충상담관(우리청 임명) 상호 교차 현장근무 추진

○ 해사노동협약 이행을 강화하여 선원 근로와 생활여건 개선

-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대상선박 소유자에 대해 검사기한을 사전에 **통보**(3회, 증서만료일 3,2,1개월전)하고 검사여부를 지속 모니터링

- 인증검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우리청 검사 선박척수 제고

* ('17년) 19척 → ('18년) 22척 → ('19년 목표) 25척

- 인증검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**인증검사 대행기관(KR)과의 합동검사 추진**(반기별)

③ 어업경영체 관리시스템 정착 및 어업인 지원 강화

○ 어업경영체 등록률*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

* '18.12. 기준 관내 등록대상 2,481어가 중 누적등록 2,448어가로 등록률 98.7%

- 경영체 등록으로 인한 실질적 혜택이 적어 어업인의 관심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직불제, 귀어, 장비지원 등 지원확대를 위해 본부와 지속 협의

○ 어업경영체 등록 홍보와 상시관리 정착화

- 지자체 어업승인 현황(면허·허가신고), 어업인 대상교육 및 행사일정을 활용하여 일대일 홍보를 강화하고 어촌계대상 현장설명회도 추진

-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 등록된 어업경영체* 대상 현지실사 추진

* '15년도 기등록 경영체 523개소 및 '18년도 상시조사 미결 경영체

○ 천성항 종합기능어항 개발*을 위해 방파제, 물양장 등 기본시설 건설을 추진하고, 대변항 소형선박 및 낚시어선 접안시설도 확충**

* (규모/기간/사업비) 방파제 360m, 물양장 320m 등 / '13.12.~'19.10. / 376억원

** (규모/기간/사업비) 물양장 300m 확충 / '19.3~'21.12 / 76억원